

# 장성 황룡강 꽃축제 3년만에 개최

### 내달 8~16일 '별빛장성' 등 4개 테마 30여개 프로그램 국악경연대회·수상체험·야간경관 조성·일자리 박람회

“3년의 기다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로 오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오는 10월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0월8일부터 16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별빛장성(공간전시)과 감성장성(문화공연, 함께 장성(체험 및 참여), 같이장성(축제 연계행사) 등

4개 테마와 3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을 안심할 수 없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무대 행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소규모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로 축제의 가락을 잡았다.

첫날인 8일에는 오후 6시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남도 명인명창들의 국악공연을 열어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축제기간에는 지역문화예술인 공연과 황룡강 미니 버스킹, 전국국악경연대회, 전통시장 페스티벌

등이 열려 흥을 돋운다.

전통열차와 수상체험(문보트), 야간경관 조성, 동호회 작품 전시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축제와 연계한 황룡강 걷기대회, 일차리박람회 등의 행사도 열려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

축제장 곳곳에 자리한 테마별 생태정원이 로맨틱한 가을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3년 만에 열리게 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파크골프장 전경.

#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시민 설명회

### 오늘 문예회관에서... 행정·법적 경과 공유 합리적 대안 모색

나주시가 지역에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열린 소통에 나선다.

나주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5일 예정했으나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시민 안전을 우려해 잠정 연기되면서 개최 일정을 재조정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그동안의 행정, 환경 등에 대한 주요 경과와 법적 소송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또 시는 '사업개시'와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SRF 발전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고 SRF 발전소 가동으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타 지역 SRF생산 및 소각과정 사례 공유와 환경 분야 전문가 설명을 듣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고 향후 SRF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히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SRF와 관련된 연이은 소송 패소로 인해 우리 시의 법적, 행정적

조치 영역이 좁아진 상황에서 시민들과 현실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고히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문화재 발굴 현장입니다 나주목 동헌터 발굴이 지연되면서 미관을 해치던 공터에 백일홍이 가득 피어 있다. 나주시는 '문화재 인근 환경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동헌터 부지 약 3600㎡에 백일홍 화단을 조성했다. <나주시 제공>

# 담양군 가족센터 “신상 장난감 들어왔어요”

### 26일부터 대여 가능

담양군 가족센터가 새로운 장난감으로 장단하고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담양군 가족센터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난감 이용 기회 제공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32종류 52점의 장난감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매한 장난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선정한 인기 장난감으로 소독 및 대여 준비과정을 거쳐 26일부터 대여한다.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한해 회원제로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 가정 당 최대 장난감 2점, 도서 2점을 2주(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관내 만 7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장난감 구매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가족센터 장난감도서관(061-383-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 함평 국향대전 성공 기원 전국 파크골프 대회

### 군, 23~24일 17개 시·도 660여명 참가

함평군이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제13회 함평전지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함평파크골프장(36홀·5만9450㎡ 규모)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시설을 갖췄으며, 지난 8월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호남 최초(전국 15번째) 공인구장으로 인증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660여 명이 참가하며 개인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샷건 방식

으로 진행되며 1일자 18홀, 2일자 18홀씩 경기를 치러 합산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대회 기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우리군 관광지 및 체육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 국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장흥군, 공무원 노사문화 '대통령 표창'

### 장흥군과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올해 전국 최고 행정기관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장흥군과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공무원노동조합 상생협력 평가에서 전국 224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최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군과 노조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한 공무원 숲길을 조성하고 건전한 회식문화를 위한 111회식운동 전개, 민족대명절 합동성묘 등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경연 장흥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행복이 곧 군민의 행복이라는 일념으로 조합



장흥군이 시책으로 펼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원의 울타리가 되어 직원복지와 시기양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더불어 군과 노조가 화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통해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파트너로서 노사가 협력해 민선8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